

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미래, ESG에서 발견하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이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하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의 비재무적 요소들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등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는 시대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담할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키워드로 강조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여기에 이익보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적 트렌드가 더해져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ESG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도 ESG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ESG를 통해 그려본다.

김민정 기자 202071004@m365.knsu.ac.kr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프로스포츠

프로야구 KBO리그 경기가 한창인 요즘, 관객들의 발길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잠실 야구장에서는 이전과 다른 조금 특별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바로 서울시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다회용기 이용 시범 사업이 지난 달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장 내 식음료 섭취 시 이용됐던 일회용품이 다회용기로 대체된 것이다.

정규시즌이 끝나는 이달 23일까지 한 달간 시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관련 업체들과 더불어 잠실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동참하는데,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친환경 경기장 조성에 앞장선다.

한편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다양한 사회 공헌 및 지역밀착활동(CSR)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의류 나눔 캠페인 ‘하

나클로스’를 통해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 경제 부담 완화 등의 상생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여성 풋살 대회를 개최하고 선수들이 직접 지역 여성 축구 동호회의 강습을 진행하는 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여자 축구 활성화를 위한 열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울산 현대는 사회취약계층 대상의 여가활동 지원 및 축구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인천 유나이티드는 인천 경찰청과 협업을 맺어 지역 실종자 찾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각 구단들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프로스포츠는 더 이상 성적이나 흥행에만 연연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며 ESG 도입을 위한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잠실야구장에서 쓰이고 있는 다회용기의 모습이다.

(출처: 서울시)

한국체대의 사회적 가치가 담긴 발자취를 따라

이처럼 ESG라는 물결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며 크게 일렁이는 가운데, 그렇다면 스포츠 교육의 메카라 불리는 우리 대학은 그동안 어떤 사회적 가치가 담긴 발자취를 남겨왔을까.

지난 3월, 우리 대학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하는 저탄소 친환경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에 협력해 ESG 실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캠페인은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으로, 이와 관련해 다음 달인 4월에는 체육학과 학생식당에서 ‘잔반 zero(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학협력 플로깅 프로그램 ‘달그락’은 협력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와 지역사회

송파구청과 함께 공동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을 쓰레기 줍기와 조깅이 결합한 활동인 플로깅을 통해 실천했다.

우리 대학 교육 이념 중 하나인 봉사 정신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발자취는 교문 밖으로까지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장애인 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은 특수체육교육과 주관으로 매년 동·하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스키나 레저 카누, 수상스키 등과 같이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종목의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여가 활동의 다변화를 꾀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장애인 스포츠 현장 지도를 통해 재학생의 전공 역량 향상 또한 도모할 수 있다.



플로깅 (출처: 한국체대 국립대학육성사업팀)



찾아가는 장애인 레저스포츠

(출처: 한국체대 특수체육교육과)

ESG, 스포츠를 통한 공익 실현의 한 걸음

<국민체육진흥공단 ESG 추진전략&9대 추진과제>

환경(E)	친환경 가치 내재화 및 확산	① 탄소중립 실행체계 고도화
		② 스포츠와 연계, 환경경영 생태계 확장
		③ 직원 참여형 환경캠페인 추진
사회(S)	스포츠를 통한 상생경영 실천	④ 사회적 약자 체육활동 보호
		⑤ 스포츠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⑥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강화
지배구조(G)	투명, 소통 기반 대국민 신뢰 제고	⑦ 올림픽레거시 확산
		⑧ 홍보 강화 및 공시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 확대
		⑨ 윤리 리스크 관리 및 청렴·투명 경영 강화



‘미드나잇 바스켓볼’ 프로그램 시행 모습이다.

(출처: 유튜브 채널 ‘편의점 클라쓰’)

전국체전의 유지신청 제출서류에 대회 기간 내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등의 환경보호 계획을 새로 포함하는 등 친환경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내부적으로 끌어왔던 조직적 구조에 따라 형성된, 그동안 스포츠 그리고 체육회가 고질적으로 지녀왔던 폭행·비리·파벌 등으로 얼룩진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하고자 ‘깨끗한 스포츠, 청렴한 체육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부패 방지방침을 선언하며 윤리 및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청렴 기관으로의 포부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KSPO)은 ‘스포츠로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KSPO만의 ESG 경영모델을 개발해 실천에 힘쓰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의 ESG 각 요소별로 추진전략을 내세우며 세부적인 9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는데, 이를 통해 ‘나’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ESG를 실천하는 KSPO만의 나눔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기자생각

“ESG와 함께하는 스포츠 그리고 우리 대학의 미래는”

ESG가 지닌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와 스포츠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상응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ESG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스포츠, 자유와 공정, 평화라는 상징성을 지닌 스포츠를 먼 미래까지 온전히 누리기 위해, ESG를 향한 스포츠계의 움직임은 지금보다 더 확장되고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SG가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그에 따라 ESG 전문가 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대학이 그 수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에 현재 대학가에서는 ESG 전담 부처 및 학과를 신설하거나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ESG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다.

ESG가 지닌 가치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변화무쌍한 현재, ‘스포츠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우리 대학이 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구조로 ESG를 실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대학 측에서는 ESG 전담 부처 및 위원회 등의 관련 조직을 신설해 전문성 있는 ESG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이라는 대학의 역할과 소임에 따라 ESG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특히나 스포츠와 ESG가 융합된 교육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의 전제조건에는 참여가 깔리고, 사회공헌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마련이 돼야 하는데 주로 인적자원이 활용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올바른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는 관심이나 감시같은 형태의 외·내형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참여해 협력하는 대학 문화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ESG의 일환으로 주관하는 제로(ZERO)웨이스트 캠퍼스 조성 사업(대학과 학생이 주도해서 캠퍼스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등 분리배출을 활성화해서 폐기물을 감량하는 사업)을 두고, 서울시는 환경문제에 민감한 MZ세대가 모인 대학에서 실행하는 제로캠퍼스가 전체적인 제로웨이스트 소비문화 확산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비록 ESG 확산의 시작은 기업이지만, 그 어떤 연령층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MZ세대가 모인 대학은 앞으로 ESG가 더 다양한 분야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핵심 매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아직은 다소 피상적일 수도 있는 ESG, 하지만 ESG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이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